

주희와 진량의 王霸 義利 논쟁

—역사 해석에 있어서 일원론과 이원론, 혹은 현실과 이념의 대립—

손 영 식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14. 진량과 주희의 논점 |
| 2. 진량의 사상적 배경 | 3. 2. 王霸 義利 논쟁 |
| 3. 주희와 진량의 논쟁 | 3. 21. 주희의 입장 |
| 3. 1. 형이상학과 역사 이론 | 3. 22. 진량의 입장 |
| 3. 11. 주희의 이론 | 3. 23. 義利 논쟁 |
| 3. 12. 진량의 이론 | 4. 맺는말 |
| 3. 13. 心無常泯 法無常廢 논쟁 | |

1. 머 리 말

주희는 30대 후반에 장식(張栻; 호는 南軒)과의 토론을 거쳐서 40세 쯤에 그의 이론의 골격을 확정한다. (中和新說)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인설(仁說), 태극설, 격물치지설 등을 내놓으며 여러 저서를 낸다. 그의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이(理)'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중화신설' 자체가 기(氣) 중심의 이론을 포기하고, 미발(未發)—이발(已發)의 이원적인 구조를 채택하여 현실에서 초월한 순수한 리¹⁾를 상징하는데서 성립한다. 따라서 기²⁾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1175년 아호사(鵞湖寺)의 모임에서 육구연(陸九淵)과의 논쟁에서 일차 나타난다. 그 뒤 진량(陳亮)과의 왕패(王霸), 이욕(理欲) 논쟁(1182~1193), 육구연과의 무극 태극 논쟁(1187~1189)은 그 두 노선의 차이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계통의 학자들은 주희와 육구연의 논쟁은 같은 유심론 내부에서 일어난 대립으로서, 그들은 각각 객관적 유심론과 주관적 유심론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주희와 진량의 논쟁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 둘은 각각 유심론과 유물론을 대표한다고

-
- 1)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 '理'는 '리'로 표기한다.
 - 2) '氣' 개념은 적용 분야에 따라 대략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張載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둘째, 사회적인 맥락에서 기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노자와 장자의 자연주의가 대표적이다. 셋째, 심리적인 의미에서 기 개념으로 인간의 의식의 측면을 말한다. 진량과 육구연은 둘째 셋째 의미에서 기론자이나, 진량은 둘째, 육구연은 셋째 의미가 두드러진다.

한다.³⁾ 주희는 육구연과는 상통할 수 있으나 진량과는 조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희—육구연의 논쟁은 사변 철학 내부에서 몇가지 범주에 관한 문제이지만, 주희—진량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두 노선의 투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또한 노사광(勞思光)은 주희와 진량이 ‘도덕적 선악 시비’와 ‘사실에 있어서 성공 실패’를 각각 중시하는 데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⁴⁾ 주희와 육구연은 리(理)와 심(心)을 각각 강조한다는 것, 혹은 마음에 대하여 각각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를 인정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⁵⁾

이런 설명들은 주희—육구연, 주희—진량의 논쟁을 두가지 다른 사실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주희가 리 중심의 이론을 세운데 대한 반론이 그들 둘이고, 그들은 하나로 묶어서 개괄할 수 있으며, 개괄할 수 있는 공통점은 ‘기’ 혹은 ‘현실중시’⁶⁾라는 말이라고 본다. 물론 필자는 육구연과 진량이 가지는 사상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주희의 사상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리 중심의 사상과 기 중심의 사상이 주희 이래 중국 유학의 중심 조류라고 볼 때 그 두 사상을 선명히 부각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이 글을 쓰지만 주희, 육구원, 진량의 사상을 함께 비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주희와 진량의 논쟁만 다루고자 한다.

2. 진량의 사상적 배경

진량(자는 同甫, 호 龍川 선생; 1143~1194)은 절강성 무주 영강 출신이다. 그의 본명은 여능(汝能)인데 제갈량(諸葛亮)을 흠모하여 이름을 ‘량(亮)’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의 사상의 핵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의 출신지 절강성 일대에서는 여조겸, 당중우(唐仲友), 진부량(陳傅良), 엽적(葉適) 등 역사와 현실을 중시하는 것이 풍조였다. 진부량 엽적 등의 영가학파는 경전과 제도의 연구를 통해 사공(事功; 현실적인 결과—즉 상황의 타개)을 말한 반면, 진량은 오로지 사공을 말했다는 것이 종래의 평가이다. (宋元學案, 龍川學案)

영가학파는 그 맥이 정이에 이어지는데 비해 진량은 뚜렷한 사승 관계는 없다. 다만 그의 문집을 보면 『伊洛正源書』(주돈이, 장재, 두 정씨의 글 모음), 『伊洛禮書補亡』(정이의 禮說을 모은 것), 『삼선생(장재, 정호, 정이)論事錄』에 서문을 썼고, 『伊洛遺禮』, 『伊川先生春秋傳』에 발문을 썼다. 『伊洛正源書』는 곁에 두고 날로 보았다고 그 서문에서 말한다. 이로 보건대 그는 친구인 영가학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두 정씨와 장재의 글을 자주 보고 익혔던 것 같다.

육구연이 13세에 ‘우주’라는 말에서 ‘내 마음이 우주이고 우주가 내 마음이라’ 하여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그의 철학을 전개시켰던 것처럼 진량에게도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남송(南宋)이 중흥하여 원수를 갚고 중원을 되찾아야 한

3) 후의로 의 편, <중국사상통사> 권 4하, p.595, 648, 739 등. 양천석 <朱熹及其哲學> 중화서국 1982, p.37, 268~285 등.

4) 노사광 <중국철학사> III 상, p.362.

5) 앞의 책, p.373, 384.

6) 현상계에서 활동하는 개체의 주관(‘나’)의 강조가 그들 둘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진량의 경우는 주체의 현실 인식과 냉철한 결론에 따라 나오는 결과를 중시하며, 육구연은 도덕적인 주체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지식인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주전파와 주화파로 여론은 갈라져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그의 근본 관심사이므로 그는,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자각하는 것'을 중시하여 개인적인 도덕 수양의 측면으로 나갔던 당시의 도학자들을 경멸하고 현실 사회의 문제로 나간다.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중시하므로, 그는 실제의 일[事]에서 실제의 결과와 업적[功]을 이루는 것을 따진다.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따질 때도 바로 이 '사공'을 기준으로 본다.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과 질서를 가져왔는가를 본다. 이에 대해 주희는 역사적인 인물이 한 행위가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는가, 즉 의리(義理; 도덕율)에 맞는가를 따진다. 이 견해 차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주희가 전형적인 문사(文士; 이론가)라면 진량은 무사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가 주장하는 상황 타개[事功]라는 것도 일선 야전군 사령관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다. 반면 행위의 정당성[義理]을 따지는 것은 서재에 앉은 문사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당시에 진량과 견해나 기질이 가까운 사상가는 별로 없었으나, 다만 문학가이며 장군이었던 신기질(辛棄疾)과는 접근한다. 둘 다 애국주의적인 정열에 싸여 공담을 배척하고 실천을 숭상한다.⁷⁾ 그의 상황타개를 중시하는 무사적인 견해는 어려서 부터 나타난다. 그는 18, 19세에 『酌古論』을 쓴다. 이 책은 한신과, 광무제 이후의 인물들인 유비 조조 등 19인의 군사 전략을 평가하고 비판한 것이다. 『손자병법』이 주로 개별 전투와 관련된 전술적인 측면을 논한다면, 이 책은 전체 상황 혹은 천하를 경략한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투를 논한 것이다. 이런 것은 그의 '중흥, 원수 갚음'이라는 근본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다져진 관점에서 그는 중원 회복을 위해 3차의 상소문을 올린다. 그 첫째가 26세때 올린 '中興五論'이다. 이것이 채택되지 않자 그는 10년 간격으로 두번 더 효종에게 상소문을 올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 울분에 싸여 있던⁸⁾ 그는 호방한 기질로 말미암아 일생에 세번에 걸쳐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을 뻔하다가 풀려난다.⁹⁾

그는 도학의, 마음을 닦고 의리를 따지는 것을 비판하며, 도덕율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살어름 밟듯 전전공공하며 사는 태도[敬]를 경멸하고 공리와 사공을 주장함으로써 반도학 혹은 반유학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 자신도 이러한 이단적인 성격을 의식하고 있어 스스로를 묘사하기를 "입으로 墨翟의 말을 외고 몸은 楊朱의 길[道]을 따르며, 밖으로는 子貢의 모습을 가지고 안으로는 原憲의 실(實)에 거한다"고 한다.¹⁰⁾

3. 주희와 진량의 논쟁

진량과 주희는 이 세상, 이 사회에 어떻게 질서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논

7) 후외로, 앞의 책, p.695.

8) 진량은 남송이 중흥하여 원수를 갚고 중원을 회복하기를 바라므로 주전파에 속한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구차하게 편안함을 추구했던 주화파가 많고 있었다. 그는 낙향하여 살면서 그런 것에 좌절하고 울분에 싸여 있었다.

9) 이는 술먹고 임금 흉내를 낸 것, 살인 사건에 무고를 당한 것 등 그의 조심성 없는 태도 때문에 투옥된 것이다. <宋史> 진량전 참조.

10) 양주와 목자는 맹자가 이단으로 맹렬히 비판한 사람들이고, 자공과 원헌은 공자의 제자이다. 성리학자들은 자공을 말은 잘하나 마음수양의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경멸한다.

의한다. 그리고 육구연과 주희가 논쟁했던 행위 주체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는다. 이는 진량이 주관적인 관념[心性] 보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문제삼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실에서 질서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다.

3. 1. 형이상학과 역사이론

3. 11. 주희의 이론

주희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자이다. 인간의 마음에서는 미발(未發)과 이발(已發)로, 세계에 있어서는 형이상과 형이하로 나눈다. 이발 혹은 형이하는 변화하며 다양성, 잡다함이 있는 현상 세계이다.(氣의 세계) 반면 미발 혹은 형이상은 변화하여 잡다한 세계의 추상적 형식 혹은 규칙성이다.(理의 세계) 이 형식 혹은 규칙은 현상 세계의 잡다한 사물의 변화에서 찾은 공통점이나 그 잡다한 변화를 반영하는 규칙이 아니라, 현상세계와는 상관없이 미리 먼저 존재하는 보편 타당한 것이다.(이래서 ‘形而上’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현상 세계의 변화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는 그 선행적인 규범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변화하는 현상계와 이에 질서를 독자적으로 주는 선행적 세계[理]의 관계를 주희는 달이 모든 강에 비추는 것[月印千江]에 비유한다.

이러한 이원론은 그대로 역사관에 투영된다. 그는 역사를 삼대(三代; 夏·殷·周)와 한당(漢唐)으로 나누어 각각 형이상과 형이하에 배속시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대는 도(道; 形而上의 理)를 완전히 실현시킨 시대이고, 한·당은 전혀 실현시키지 못한 도가 은폐된 시대이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한다.

잡다한 현상계를 반영하는 마음은 인심(人心)이다. 사람은 날마다 여러 사물·일에 접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싫은 것은 피한다. 이러한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人欲]이며 인심이다. 오직 선행적인 도(道; 天理)만을 따지는 것이 도심(道心)이다. 이 마음은 자신이 일상세계[形而下者]에서 부닥치는 이익·손해를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마땅히 해야 할 것[天理—형이상자]만 한다. 이 천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未發]에 보존되어 있어 잘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 즉 도덕적인 양심이다. 따라서 사람은 ‘인심’을 좇지 말고 ‘도심’에 따라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삼대는 도심으로 다스린 시대였다. 요·순·우 임금의 서로 전한 것은 단지 통치권 뿐만 아니라, “人心惟危, 道心惟微하니 精惟一하여 允執厥中하라”는 ‘밀지(密旨)’였다. 이 ‘밀지’를 탕왕·무왕은 들어서 알거나(맹자 진심下38) 반성해서 도달했다.(맹자 진심下 33) 이를 공자는 안회·증자에서 전하고, 증자는 자사에게 그리고 그 뒤에 맹자에게 전해졌다. 그 증거로 안회에게는 “하루에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 사랑)으로 돌아간다”고 하고(논어, 안연1), 증자에게는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고 했다.(논어 이인15) 자사는 “도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군자는 남이 안보이는 데서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 한다”고 하고(중용1) 맹자는 천지에 가득한 호연지기를 말했다.(맹자 공손추상2) 그리고 맹자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서로 전해졌던 오묘한 것[妙]”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당시대는 도 혹은 도심(道心)은 은폐된 채 모든 임금 신하 백성은 인심(人心) 속에서 서로의 욕심[人欲]을 가지고 다투었을 뿐이다.(이상 주자문집 36—19)

이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이론에 근거하여, 상당히 치밀하게 증거를 댄 것이지만, 결국 유학에서 유심론의 계통을 서술한 것으로 두 정씨의 도통론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과연 삼대는 천리가 그대로 실현된 사회인가? 『서경』만 믿고 신화시대를 이상사회로 볼 수 있는가? 『서경』을 보더라도 왕들 사이에 밀지가 다 전해진 것도 아니고 정권 싸움과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당 시대에 정통 유심론 계통의 유학자가 없었다고 암흑시대로 볼 수 있는가? 이는 자신의 이론을 경전(經)이라는 권위에 기대어 합리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는 도[天理]는 현실[形而下者]에 실현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므로, 왕도 아니고 책임있는 정치가도 아니었던 공자 증자 맹자 등도 도를 이어 받았다고 본다. 이런 현실무시가 한당을 어두운 시대로 보게 한 것이다.

3. 12. 진량의 이론

이러한 점을 진량은 격렬하게 비판한다. 그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비판한다.

하늘에 해와 달이 규칙적으로 돌고 사계절이 순환하며, 땅에 만물이 자라는 것은 모두 천지에 도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인간 세계에서만 삼대 이후 1500년간 도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오랜 기간에 “천지는 또한 비세는 집을 임시로 막아 세월 보내고(架漏過時) 인심(人心)은 또한 (치마) 터진 곳을 억지로 기워서 날을 보낸 것(牽補度日)이니 만물은 어떻게 번성하며 도는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가?”(진량집 20-4) “만약 천지가 架漏過時할 수 있다면 이는 돌덩이같은 한 사물이고, 인심(人心)이 牽補度日할 수 있다면 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半死半活] 짐승일 것이다.”(진량집 20-5) 진량이 보건대 천지와 인간[人心]은 그저 그냥 존재하면서 어영부영 세월 보내는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도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진량은, 천지인(天地人)은 삼재(三才)이므로 천지가 지금까지 잘 운행해 왔듯이 인간세계[人]도 나름대로 도가 실현되어 왔다고 보며, 한당시대에 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희의 주장은 결국 인간세계 뿐만 아니라 천지에도 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본다. 왜냐하면 “천지는 항상 홀로 운행되고 인간 행위만이 그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人)이 서지 않으면 천지는 홀로 운행할 수 없고, 천지를 버리면 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진량집 20-5)

이에 대해 주희는 자연[天地]과 인간세계[人]를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천지인은 물론 진량의 말처럼 하나의 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천지는 마음이 없으나 인간은 욕망이 있다” 여기서 마음이나 욕망은 이발의 의식(consciousness)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연[天]은 욕망이나 의도가 없이 그냥 미발의 리를 그대로 실현시키나 인간은 욕망, 의지가 있어 미발의 천 리보다는 자신의 이해(利害)에 따른다. (이러한 天人구분이 역사에 투영된 것이 三代-漢唐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지의 운행은 무궁하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 즉 의리(義理)의 마음이 잠시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인도(人道)가 그치게 된다” 그러나 천지의 운행이 따라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는 없어진 적이 없지만 사람이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완벽함과 불완전함의 차이가 있다” 반대로 진량의 말처럼 “진실로 이 몸이 있으면 도는 자연히 존재하고 반드시 이 몸이 없고 나서야 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상, 주자문집 36-19).

여기에서 두사람 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 세계의 규범을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¹¹⁾ 다만 진량은 현상 [자연과 사회]이 있으면 언제나 거기에는 그 시대 상황에 따른 도가 있다고 보는 반면, 주희는 현상 혹은 역사와 상관없이 도는 존재한다고 본다. (月印千江) 이는 형이상자를

11) 주희는 “三才가 三才인 까닭은 본래 서로 다른 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주자문집 36-19) 단 주희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현상을 각각 필연과 의지에 따르는 것으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진량 보다는 진보적이다.

부정하느냐 않느냐, 혹은 현상세계의 상황을 중시하느냐 선형적인 원리(天理)를 중시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만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희의 근본 입장을 반박하여 한당의 1500년 간은 도가 없이 영성하게 어영부영 세월만 지나 왔느냐는 진량의 반문에 주희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 입장 차이는 그 뒤 편지에서도 계속된다. 예컨대 요 순 임금이 서로 전했던 밀지(密旨), 즉 도심(道心)이라는 심법(心法)을 주희가 광명보장(光明寶藏)¹²⁾이라 하고 (주자문집 36-20) 한당의 군주는 모두 욕심에 본심[光明寶藏]이 가리워져 이욕(利欲)의 장(場)에서 대가리를 들이내밀었을 뿐[頭出頭沒] 성공한 자란 본심에 그 행동이 암합(暗合)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주자문집 36-20) 진량은 묻는다. “빛나는 해가 중천에 있어 처처가 다 광명(光明)하니 눈감은 사람은 눈을 뜨면 그만이다. 어찌 세상 사람이 다 눈이 멀어 이 광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¹³⁾ 눈이 먼 자가 더듬어 찾기 때문에 ‘암합’이라 하는데, 2000년 사이에 모든 눈이 다 멀었던 말입니까?(진량집 20-7) 이 말씨름도 架漏, 牽補 논쟁의 연장일 뿐이다.

3. 13, 無心常混, 法無常廢 논쟁

진량은 삼대 뿐만 아니라 한당 시대에도 도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삼대는 완전히 다한 때이고, 한당은 완전히는 다한 시대는 아니다”(진량집20-6)이것은 주희와 일견 같은 견해인 것처럼 보이며, 진량도 유자인 이상『서경』이 묘사하는 삼대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의 말이 애매하고 또 주희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진량의 본래 의도대로 말한다면 이렇다. 삼대도 완벽한 시대가 아니며 한당도 완전 암흑시대가 아니다. 삼대나 한당이나 다 같은 역사 시대이며, 다 같이 잘 다스려졌던 시대도 혼란한 시대도 있었다. “마음의 작용은 다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항상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법의 조문은 불비(不備)한 때도 있으나 항상 폐(廢)해지는 것은 아니다”(진량집 20-5, 6) 한당 시대에도 마음이 작용하고 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희는 진량의 그 명제를 “心無常混, 法無常廢”라는 말로 요약하고, 자신과 진량 사이에 일치점과 차이점이 다 이 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법이 있다. 따라서 항상 소멸하고 항상 폐해진다는 이치는 없다.” 이 점이 일치점이다. “그러나 ‘항상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 어느 때는 소멸된다는 말이고, ‘항상 폐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면 어느 때는 폐해진다는 말이다”(이것은 명백히 강조의 오류이다. 진량은 ‘소멸됨’과 ‘폐해짐’을 강조했다는데 주희는 ‘항상’을 강조하여, ‘항상…은 아니므로 어느 때는 그렇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주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을 본래 타고난 오묘함[本然之妙]인 천리라 하고, 이것을 가리워서 어느 때는 소멸시키는 것을 인욕(人欲)이라 본다. “본연의 묘를 논하자면 오직 천리만 있고 인욕은 없다. 따라서 성인의 가르침은, 반드시 인욕을 다 제거하고 천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주희는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하여 형이상자인 천리는 미발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으며(性即理) 이것만이 영원하다. 그것은 다만 때에 따라 욕심(人欲)에 가리워져 소멸되고 폐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한다.(이상 주자문집 36-19)

12) 빛나는 보배로운 마음. ‘藏’은 불교 용어로 제7識인 알라야識을 가리키며 이는 ‘본성(性)’과 같다고 주희는 본다.

13) 이러한 비관 때문에 다음 편지(주자문집 36-19)에서는 ‘光明寶藏’이라는 말 대신에 ‘正法眼藏’이라고 바꾸어 말한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불교의 용어이다.

이 같은 논증이 진량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은 뻔하다. ‘항상’이라는 말 가지고 논증하는 것이 수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논증에 따라 ‘어느 때는 소멸된다’는 것을 받아들여도 삼대 이후에만 소멸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3. 14. 진량과 주희의 논점

진량은 형이상의 천리가 천지(天地)에는 천지의 마음으로, 사람에는 미발에 본성(性)으로 존재하여 형이하의 현상세계에 균림할 뿐 영향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어떤 시대의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는 선형적인 법칙은 없다. 다만 자기 시대 자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문제의식은 ‘시대를 구하고 난리를 평정하겠다’(救時除亂)는 것이다. 진량은 자신의 학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하나의 머리 [요점]가 있으니 그것은 ‘해서 이루자’는 것이다.”(진량집 20-4)고 한다.

진량이 천리와 같은 선형적인 법칙을 부정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조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함께 서서 셋이 되는 까닭은 천지만이 항상 홀로 운행하고 인간의 노력(人爲)이 그침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서지 않으면 천지는 홀로 운행할 수 없고, 천지를 버리면 도가 되지 못한다.”(진량집 20-5) 마찬가지로 천지가 없으면 사람도 설 수 없을 것이다. 천지와 사람이 얽혀 하나라고 진량이 보는 이유는 상황 타개[事功]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을 처리해 나갈 때 천지 등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사람이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대를 구하고 난리를 평정할 때 하늘과 땅 사이는 안정과 질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신으로 가득찬 글이 그의 『酌古論』이다. 그는 여기에서 ‘천하를 도모하는 대계(大計; 전략)’를 논의한다. 장수가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피가 없으면서도 요행히 승리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객관적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난 뒤 군사작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심모원려(深謀遠慮)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한 전투에서 양군이 대치할 때 기회를 헤아리고 면밀히 준비하여 승리하는 것은 뛰어난 지략(智略)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하의 뛰어난 전략가[奇智者]는 전체 상황을 손바닥 안에서 헤아려 천리 바깥에서 이미 승리를 확보한다. 작전 시작에는 매우 황당한 것 같으나 작전이 끝나면 그 말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진량집 8, 崔浩) 다시 말해 영웅적인 전략가는 평상시 한가할 때 미리 규모와 전략[術略]이 가슴에 정해진지 오래이고, 일단 그 일이 닥치면 준비된 대로 하여 마치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돌을 굴리는 것 같아 그 거세게 나가는 기세는 거의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힘씀은 쉬워도 거두는 공은 크다”(진량집 7, 鄧艾)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조는 전투는 잘 했으나 천하를 도모하는 원대한 계략은 없었다. 그는 원소를 격파하여 하북을 장악하고 남하하여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을 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천하를 도모하는 지략이 있었다면 먼저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초를 불러 들이고, 한중과 파촉을 쳐서 장악한 다음 형주의 유비를 치고 동오의 손권을 쳤어야 했다. (진량집5. 曹公) 약한 쪽부터 쳤어야 하는데 강한 쪽부터 쳐서 힘만 소모했다는 것이다.

진량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냉철히 파악하는 이성이다. 문제 상황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과제이다. 따라서 삼대는 이상 사회이고 한당은 암흑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문제 상황은 시대마다 다르므로 해결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삼대의 법도가 어느 시대에나 실현되어야 하는 천리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를 단절된 것 혹은 이질적인 두 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주희를 반대하고 연속되며 동질적인 것으로 진량은 본다. 이는 그들의 이원론과 일원론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희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법칙[天理]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로 도덕규범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타협하거나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도덕적 이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을 냉철히 파악하여 그 상황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진량에 대하여 그것은 단지 상황 논리에 불과하며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한다. 단지 상황만 해결하면 되는가? “시대를 구하려는 뜻과 난리를 평정한 공이 있다면 그 하는 것이 비록 도덕규범[義理]에 다 맞지 않아도 또한 일세의 영웅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가?”(주자문집 36-19)라는 주희의 비판에 대한 진량의 답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음에서 기술하기로 하자.

3. 2. 王霸·義利 논쟁

3. 21. 왕패 논쟁 ; 주희의 입장

이 문제를 최초로 명확히 거론한 사람은 맹자이다. 『맹자』 첫머리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는(利國) 방법을 묻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나라를 이롭게 함’과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인의를 확립함’의 대립은 맹자 전반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다. ‘힘으로 이루어 놓고 어진 정치[仁政]인척 하는 것’이 패도(霸道)이고, ‘덕으로 어진 정치를 행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공손추 上 3) 맹자가 보건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⁴⁾

이것은 다시 정신적인 도덕규범(義)과 물질적 이익(利)의 문제로 나타난다. “눈 귀 입 등이 좋은 소리 음식 등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性)’이기는 하나 ‘운명(命)’이 있으므로 참된 본성이 아니다; 인의예지는 그 실현에 ‘운명’이 있으나 ‘본성’이므로 진짜 운명이 아니다”(진심下24). 혹은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데 방법(道)이 있고 얻는데 ‘운명’이 있다. 이는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진심 上3) 맹자는 세상을 주관적 내면 세계[性]와 객관적 현실[命]로 나누어,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면 세계의 일 [仁義禮智를 닦아 인격을 완성하는 도덕수양]이고,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 나름의 필연성[命; 운명]이 있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눈 코 입 등의 감각 기관의 욕망과 관련된 부귀·빈천·요수(夭壽) 등의 일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외부의 일은 내면을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몸을 닦으라고 한다.¹⁵⁾

이러한 관점은 동중서에 와서 ‘그 마땅함을 바르게 하되 그 이익은 피하지 말 것이며 그 도를 밝히되 그 공은 셈하지 말라(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고 간략하게 요약된다. 그리고 이 명제는 그대로 정자에게 받아들여지며(河南程氏 遺書 9-26) 주희의 기본 관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맹자 이래 왕도와 패도, 본성과 운명, 도덕 규범[義]과 물질적 이익[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주희에 의해 형이상학과 형이하, 미발과 이발의 이원론으로 되며, 다시 역사에 적용되어 삼대와 한당을 나누어 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역사관의 시초는 정자이다. 그는 요임금으로부터 맹자까지 도가 전해오다 그 이후

14) 맹자는 물질적인 이익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힘 겨루기로 나간다고 본다. 만일 임금이나 신하가 제각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君臣 사이에는 투쟁 갈등만 있게 된다. 군신 사이는 마땅히 그런 갈등 대신에 사랑[仁]과 의리[義]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지론이다.

15)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에 흔들리지 말고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라”고 맹자는 말한다. <맹자, 진심> 상1 참조.

끊어졌다는 도통론을 전개하고, 이를 다시 역사에 적용시켜 “선왕의 시대는 도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나, 후세는 다만 법으로 천하를 움켜쥐었을 뿐이다”(하남 정씨 유서 1-13)라고 한다. 즉 삼대는 왕도로 다스려졌던 시대이고 한당은 패도로 다스려졌던 시대라는 것이다. 그런데 맹자 이래로 유가는 ‘나’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힘’겨루기로 나가는 패도를, 혼란을 초래하며 악화시키는 것으로 본다(양혜왕 上1참조) 그러나 삼대에도 혼란이 있었고 한당에도 평화는 있었다. 그렇다면 패도를 추구한 한당시대의 평화는 무엇이고, 삼대의 평화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해 주희는 ‘우연히 합치[暗合]했다’는 이론을 내 놓는다.

“후대의 이른바 영웅들 [漢高祖·唐太宗 등]은 이러한 공부 [요순 임금이 서로 전한 心法]는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천하의 패권을 쟁취해서 황제가 되기 위한 야욕의 싸움터에서 머리를 들이 내밀며 싸웠을[頭出頭沒] 뿐이다. 그 바탕이 아름다운 자는 곧 요순의 심법(心法; 天理)과 우연히 합치(暗合)하는 바가 있어 그 정도에 따라 설 수 있었다.(업적을 세움). 그러나 어떤 이는 우연히 맞고 어떤 이는 우연히 안 맞았으나 완전히 다 선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같다”(주자문집 36-20) 즉 각자의 야욕에 따라 서로 싸우다 그 중 우연히 천리에 맞게 한 자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패도를 추구하다 우연히 왕도에 맞게 하여 승리한 자가 한·당 시대의 영웅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문제는 있다. 한당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의 성공이 오직 그리고 모두 다 우연[暗合]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주희는 ‘인과 의를 빌림(假仁借義)’을 말한다. 義)’을 말한다.

“당태종의 마음은 한 마음(一念)이라도 야욕[人欲]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바로 그는 인과 의를 빌려서 그 개인적인 야망을 실행했으나, 당시에 그와 싸웠던 자들은 재능과 술수가 그보다 못하고 또 인과 의도 빌릴 수 있다는 점¹⁶⁾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당태종)가 이들보다 그런 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을 이룰 수 있었다”(주자문집 36-17)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는 요순이 전한 도심(道心)에서 나오고, 하나는 인심(人心)에서 나왔다면 이는 각각 왕도와 패도이고, 이 패도는 왕도와 우연히 합치(暗合)한 것이거나 인의를 빌려 왕도인 척 한 것이다. 가인차의(假仁借義)해도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놓아두더라도, 한당의 영웅의 마음은 오직 야심[人欲] 뿐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역사적 사실적 사실보다는, 맹자 이래 요순이 전한 심법(心法; 道心)이 끊겼다고 하는 도통론¹⁷⁾이라고 하는 점을 문제가 있다.

3. 22. 왕패 논쟁 ; 진량의 입장

진량은 주희의 이원론(역사관·심성관)에 대해 그의 일원론으로 비판한다. “삼대는 오로지 천리로 행했으나, 한당은 오로지 야욕으로 행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천리와 암합(暗合)한 것이 있어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주희의 암합설에 대해 진량은 “진실로 이 말대로 라면 1500년 동안 천지는 비세는 곳을 임시로 막아 세월을 보내고 인심(人心)은 터진 곳을 혈뜬어 기워 간신히 날을 보낸 셈인데 만물이 어떻게 번성하고 도는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진량집 20-4)

진량은 삼대와 한당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당시의 문제가 있고,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때 도가 실현되며 평화와 질서가 온다. 이런 점에서 삼대의 성인이나

16) 이는 유명한 도둑이었던 도척도 인의를 빌려야 도둑질할 수 있다는 <장자, 거협>편의 말과 같은 논리이다.

17) 주자문집 36-19.

한당의 군주는 같다.

“한당의 임금의 본바탕은 크고 넓어서 확 트이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천지가 아울러 서서 사람과 사물이 그에 힘입어 숨쉬고 살 수 있었다.”(진량집 20-4)

이런 점에서 진량은 왕도와 패도, 도덕과 이익을 나누는 것을 부정한다. 왕도는 질서와 평화를, 패도는 혼란과 투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패도를 버리고 왕도를 지키라는 것을 반대한다. 개인에 있어서 이해(利害)와 욕망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떤 시대 어느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大勢)이다. 따라서 그는 왕도와 패도, 도덕과 이익의 통일을 주장한다.

“잡패(雜霸)라는 것도 그 도는 본래 왕도에 근본하고 있다. 여러 유자(儒者)가 자처하는 것은 왕도이고 도덕(義)이며, 한당이 해서 이룬 것은 이익(利)이며 패도이다. 하나[儒者]는 스스로 이와 같이 말하고, 하나[잡패]는 스스로 그와 같이 한다. 말하는 것이 비록 매우 좋으나 한 것도 또한 나쁘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이 도덕과 이익이 함께 행해지며(義利雙行), 왕도와 패도를 아울러 쓰는 것(王霸並用)이다. 나의 학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옷점—해서 이루자—이 있을 뿐이다.”(진량집 20-4)

왕도와 패도, 도덕과 이익을 통일시키는 관점은 “해서 이루자”는, 문제해결이라는 점이다. 그는 주회처럼 그 사람이 도심으로 했느냐 인심(人心)으로 했느냐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법도에 맞고 그의 시도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여 결과를 중시한다.

진량은 왕도와 패도, 도덕과 이익이 통합되는 것을 ‘폭력을 막고 난리를 그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한고조와 당태종은 본래 군자의 사수(射手)이었으나, 오직 말뚝이꾼이 완전히 바르지 못해 그 활쏘이 일출일입(一出一入)했다.¹⁸⁾ 그러나 끝내 포악함을 금하고 난리를 그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했던 것은 그 본령이 크고 넓어 확트였기 때문이다”(진량집 20-5)

진량은 천하의 사람과 생물들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힘의 추구일지라도 정당하며, 더구나 포악과 난리를 제거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는 맹자를 배격하고 목자의 겸애설에 가까워진다.(그는 스스로 ‘입으로는 墨翟의 말을 외고’라 하고, 결의 사람들이 자신을 “兼愛太泛하다”고 한다고 함. 진량집 20-4)

그는 ‘폭력을 막고 난리를 그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하려는 ‘크고 넓어 탁트인 본령’을 갖난애가 무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고 구해주려 하는 마음 [측은지심 : 仁]이라 한다.¹⁹⁾(사실은 兼愛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한번 발동되면 일세를 진동시키므로 다만 무물에 빠지려 하는 어린애를 볼 때 나온 미묘하여 확충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진량집 20-5) 이는 결과가 어떻든 기미(機微)의 순간에 나오는 마음을 중시하여 인심과 도심을 따지는 주회를 비판한 것이다. 진량은 한고조나 당태종이 천하의 혼란을 제거하려고 꺾기한 그 마음을 모든 사람과 생물을 사랑하는 넓고 탁트인 마음으로 본다. 반면 주회가 보건대 그것은 천하의 대권을 잡으려는 추잡한 권력욕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진량의 경우 그 목표가 천하의 평화와 질서라면, 주회의 경우는 한 마음의 평화와 질서라고 할 수 있다.

18) 사수와 말뚝이꾼의 이야기는 <맹자, 등문공> 하 1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말뚝이꾼은 바르나 사수가 바르지 못한 것으로 나오나, 진량은 그것을 뒤집어 말하고 있다.

19) <맹자, 공손추> 상 6.

3. 23. 義利논쟁

주희는 동기와 결과를 엄격히 나누어, 선한 의지, 즉 도심만을 따를 것이지 결과[利害]에 대해서는 추호도 고려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그대로 역사에 적용된다. 옛 성현은 근본에서 부터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는 [惟精惟一] 공부'를 하여 그 '중용'을 잡았으므로 철두철미 다 선하나, 한당 시대의 영웅들은 야욕(利欲)의 싸움터에서 두출두몰(頭出頭沒) 했으므로 하나같이 완전히 다 선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마음은 야욕의 마음이고 그 행적도 야욕의 행적이다.

주희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천리와 인욕(人欲)은 털끝만큼까지도 분별해야 한다고 한다. 진량이 영웅이라 했던 한고조와 당태종에 대해 주희는 그들의 마음에는 인욕만이 있었다고 한다. 한고조에 대해 약법 3장은 말했으나 삼족을 멸하는 것(三族之畧)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보며, 당태종에 대해 혼란을 제거하겠다는 뜻[거병하는 것을 말함]은 좋으나, 그것을 위해 자기 아버지에게 궁녀를 대주고,²⁰⁾ 천자가 되기 위해 자기 형들을 죽이는 등 여러 패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주자문집 36-19) 이런 식의 천리-인욕 분석은 모두 개인의 사생활 분석에 치중한다(이는 천리 인욕이 마음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희는 진량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투옥당할 일, 정자를 세우고 즐길 일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의 분석을 한다.

이런 점에서 진량과 주희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당태종의 경우 진량은 그가 난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거병하여 천하를 안정시킨 것을 보나, 주희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두 형을 죽인 것을 본다. 주희는 한당의 모든 인물을 비판하나 오직 제갈량은 칭찬한다. 진량도 제갈량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주희는 제갈량이 왕이 되어도 좋다는 유비의 유언을 거절하고 신하로 남아 축환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나, 진량은 그가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주희가 사생활 혹은 행위의 동기를 보는 반면 진량은 천하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본다.

진량의 이러한 결과주의에 대해 주희는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한다.

"만약 국가를 세워 오래 동안 전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그가 천리의 바름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성공과 실패로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니 그 짐승 사냥 많이 한 것만 취하고 그 그르게 수레를 몰아 짐승에게 가는 것이 바르지 않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은 것²¹⁾입니다"(주자문집 36-17)

"때를 구하려는 뜻과 난리를 그치게 한 공이 있다면 그 하는 것이 비록 다 의리(義理)에 맞지 않더라도 일세의 영웅이 되는데는 방해가 되지 않겠지요."(주자문집 36-19)

"다만 그 다했느냐 다하지 못했느냐(즉 결과)만을 논하고 그 다하고 다하지 못한 까닭(동기)은 논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인의 사업[三代]을 야욕(利欲)의 마당에 가지고 가서 비교하고 해아려 보고 비슷하고 닮은 것을 보면 곧 '성인의 모양이 이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른바 시초의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의 차이로 끝난다는 것²²⁾입니다."(주자문집 36-20)

결과가 좋으면 그 행위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이다. 이점에서 주희는 진량을 자기 제자

20) 당태종 이세민은 수나라 말기의 혼란기에 거병하려 했으나 아버지인 이연이 찬성하지 않자, 이연이 지키는 궁궐의 궁녀를 몰래 대주어 함께 자게 했다. 이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연은 거병에 찬성했다.

21) 주 18참조.

22) 최초의 전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완전히 틀려져서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 된다는 말.

들에게 혹평한다.

“역사(책)을 보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치고 받는 것이 무슨 보기 좋은 것인가? 진동보(陳同父; 진량)의 일생은 역사 때문에 망쳤다.”(주자어류 123-16) (이는 진량이 『酌古論』을 쓰고, 또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진동보가 책을 읽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람이 강도의 취조서를 보는 것과 같다. 보통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고 다시는 못하게 막고 금지하여 교육시키려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진량]는, 강도를 심판하고 다시 못하게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강도짓하는 허다한 방법을 이해하고 그 하는 짓을 배우려 한다”(주자어류 123-19)

이 비판은 만일 진량이 일개인이거나 어느 집단에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면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따진다면, 도둑질도 이로우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진량이 주장하는 결과란 천하의 이익 [즉 除亂救時]이므로 이런 주희의 말은 상당히 악의적인 증상모략이라 할 수 있다.

주희는 또한 결과주의를 인의를 빌리는 것(假仁借義)과 연결시킨다.

“조비(曹丕)가 이미 찬탈하고 난 뒤 ‘순(舜)·우(禹)의 일을 나는 안다’고 했다. 이는 자기를 가지고 성인을 엿보고 순·우도 또한 찬탈하고 난 뒤에 선양이라 꾸며었다고 한 것이다. 진동보도 또한 한당 시대의 일에서 인의를 찾아서 ‘이것이야말로 왕자의 일이다’라고 하니, 조비와 뭐가 다른가?”(주자어류 123-18)

주희는 진량에게 자신의 이원론을 받아들여 인욕을 배제하고 천리를 찾으라고 권한다.

“이제 만약 반드시 제한을 철거하여 옛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하려 한다면; ‘요순이 서로 전한 마음쓰는 법[心法]과 탕왕과 무왕이 반성한 공부²³⁾를 깊이 상고하여 준칙으로 삼아 내 몸에서 찾아 볼 것이며, 오히려 한고조 당태종의 마음먹음[心術]의 은미한 것에 나가 (人欲을) 통렬히 먹줄치고 깎아내며, 그것이 (天理와) 우연히 합치한 곳을 잡아서 그것이 온 곳[天理]은 살피고, 그 어그러진 것은 내치며 그것이 일어난 곳[人欲·利害]을 조사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이러면 하늘과 땅의 떳떳한 법도와 옛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인 정의를 거의 내 몸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자문집 36-19)

이러한 동기주의에 대해 진량은 자신의 결과주의를 버리지 않는다.

“중대 사태가 벌어진 고난의 때를 당하여 서생(書生)의 지혜란 의론을 마땅히 바르게 해야 함은 알아도 상황타개[事功]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절의를 마땅히 지켜야 함은 알아도 형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알지 못하며, 말과 문장 가운데서 헤메이면서도 한 사람도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진량집1. 戊申再上孝宗皇帝書)

이러한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 속에서 그 둘이 갖는 인간관도 다르다. 주희는 “분노를 삭이고 욕망을 틀어 막으며[懲忿窒慾] 선에 나아가서 허물을 고치는[遷善改過] 일에 종사하여 순수하게 착실한 선비[醇儒]의 도로 스스로 규율[自律]하는 것”을 바란다.(주자문집 36-15) 이에 비해 진량은 “당당한 진(陣)과 정정한 깃발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번갈아 번쩍이며 용과 혼랑이가 변신하며 출몰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일세의 지혜와 용기로 밀어 붙이며 만고의 심흉(心胸)을 열어 짓히는”, 시대를 구제하겠다는 뜻을 갖고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우는 영웅을 바란다.(진량집 20-4) 착실한 선비와 일세의 영웅, 이것이 그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23) <맹자, 진심> 하 33.

이러한 근본 입장의 차이는 말로서 설득시켜 줄힐 수는 없다는 것을 주희는 깨달은 것 같다. 따라서 진량에게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주자문집 36-17)고 한다. 즉 백척의 바지랑대 꼭대기에서 한걸음 내딛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다. 그렇듯이 자기의 근본 주장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그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주희의 주장이다. 그러나 진량도 마찬가지를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평행선은 주희와 진량이 각각 대표하는 입장이 인간과 사회를 나름대로 정확히 본 것이기 때문이리라.

4. 맺는말

이상에서 서술한 주희와 진량의 사상은 여러모로 비교할 수 있다. 주관과 객관, 혹은 마음과 현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주희는 마음을, 진량은 현실을 강조한다. 물론 이 경우 주희는 객관적인 리를 주장하므로 현실에 접근하나, 그 리는 초시대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초월성[형이상, 미발]과 내재성[형이하, 이발]의 측면에서 볼 때 주희는 초월성을, 진량은 내재성을 주장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주희는 리에, 진량은 기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기(氣)는 자연에서는 물질의 재료를 의미하고,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발의 의식[情]을 말하고,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당면한 상황을 가리킨다. 진량의 경우는 세번째 것을 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는 일종의 오감의 면도날과 비슷하다. 선험적인 법칙 혹은 리를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리 주어진 법칙 없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그는 주관이 능동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는 선험적인 법칙을 거부하므로 인간의 행동의 보편타당성을 근거시킬 곳을 찾아야 한다.

주희는 그에게서 상황에 대처하는 주관의 능동성 혹은 현실 타개의 능력이 없다고 비판 받는다. 반대로 주희는, 진량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보편타당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므로 모든 인간은 이익과 손해만 따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진량은 자신의 기론(氣論)은 ‘전체’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진량은 문제 상황의 단위를 ‘나’나 어느 ‘집단’이 아닌, ‘천하’로 잡는다. 천하의 대세를 도모하는 것, 즉 난리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여 천하에 안정과 질서를 가져 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정세를 분석해야 한다. 즉 천하를 자기 손바닥[마음] 안에 놓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천하를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는 천재를 요구한다.

주희도 전체성을 강조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의 총체[태극]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性即理] 모든 인간이 그 리에 따라 살 때 세상에는 안정과 질서가 온다. 이런 점에서 주희와 진량이나 전체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이루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주희와 진량의 논쟁의 초점은 한당 시대를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주희는 한당 시대를 부정한다. 그는 ‘형이상-형이하’의 이원론을 그대로 역사에 투영하여 삼대(三代)는 천리(天理; 형이상)가 완전 실현된 사회이고, 한당은 천리가 욕망[人欲]에 의해서 은폐된 시대라고 본다. 이는 또한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공자 맹자까지 도(道)가 전해지고 그 이후에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도통론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론은 도덕적인 역사관으로, 선험적인 도덕 규범[리의 총

체인 태극]이 역사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주로 보려는 것이다.

진량은 그러한 이원적인 혹은 이질(異質)을 주장하는 역사관을 거부하고 삼대나 한당이나 같다고 본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각각 시대마다 가진 문제는 다르다. 따라서 선형적이고 초월적인 법칙이란 없고 단지 각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면 도가 실현된다. 이러한 결과[事功] 중시를 주회는 비판하고 철저한 동기주의로 나간다. 그는 인심과 도심을 나누어 도심에서 나온 행위만이 선하고, 인심에서 나온 행위는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선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러한 동기주의와 결과주의는 이 논쟁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결론이 나거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유하자면 백척 간두(百尺竿頭)에 올라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不動心; 자기 이론에 대한 확신]을 이룬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상대에게 그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進一步)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한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없었다. 진일보 할 경우 개종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즉 정신적 사망을 통한 재탄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들은 각자의 입장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런 확신에 갇힐 수 있을 만큼 각자의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